

**▶ 2017년 객석 점유율 96% 기록을 남긴 남경주, 최정원, 이지하, 송일국이 다시 뭉쳤다.**

**▶ 개성과 실력으로 중무장한 배우들이 교양이라는 가면 안에 가려져 있던 우리 모두의 민낯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까발린다!**

**▶ 프로레슬링 혼성 태그매치를 관전하는 듯한 긴장과 재미를 선사하기에 가장 완벽한 형태의 극장!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X 연극 대학살의 신**

**▶ 2009 토니 어워즈, 2009 올리비에 어워즈, 2010 대한민국 연극대상, 2010 동아연극상 등
국내외 권위 있는 시상식이 모두 인정한 수작!**

**2019 연극 <대학살의 신>, 남경주, 최정원, 이지하, 송일국이 다시 뭉쳤다.**

남경주, 최정원, 이지하, 송일국 주연의 연극 <대학살의 신>이 2월 16일부터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공연된다. 지난 2017년 동일 캐스팅으로 공연된 이 작품은 *‘1시간 30분이 너무나도 짧았던 연극 (lovekissm\*\*\*)’, ‘최고의 배우들이 만든 멋진 연극 (toaz8\*\*\*)’, ‘4명의 배우들의 케미만으로도 최고 (jja89\*\*\*)’, ‘같은 캐스트로 다시 보고 싶어요 (hg830\*\*\*)’, ‘원작의 훌륭함도 있지만 네 배우의 앙상블이 기가 막히게 좋았다 (yidon\*\*\*)’* 는 등 관객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객석 점유율 96%를 기록했다.

**2년만에 이루어진 네 배우의 바람**

‘그 멤버 그대로 출연한다면 꼭 다시 하고 싶다’는 네 배우의 바람은 2년만에 이루어졌다. 알랭 역의 남경주는 “지난 시즌 네 캐릭터 모두 자기 몫을 해냈다고 생각한다. 이 멤버로 한번 더 공연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회가 와서 설렌다” 며 소감을 전했다. ‘송일국의 재발견’이라는 극찬을 받은 미셸 역의 송일국은 “이 작품을 끝내고 일 년여 프랑스에 다녀왔다. 그 시간 동안 연기에 대한 갈망이 매우 컸는데 이 작품으로 다시 관객을 만날 수 있어 기쁘다. 그 동안 쌓여온 연기에 대한 열정을 불사를 것이다” 며 의욕을 보였다. 그리고 아네뜨 역의 최정원은 “정말 순식간에 끝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개인적으로 아네뜨가 화를 분출하는 장면에서 터져줘야 하는 특수효과 때문에 매회 긴장을 했는데 이번 시즌은 그 노하우를 잘 살려서 더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고, 베로니끄 역의 이지하는 “연습부터 정말 재미있게 했던 기억만 있다. 다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에너지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다. 이번 시즌엔 좀 더 에너지 넘치는 공연을 보여드리겠다” 라고 의지를 보였다. 한편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 연출을 맡은 김태훈은 “이 작품은 웃기기만 한 작품이 아니다. 그 웃음 뒤에 진한 페이소스가 있다. 이번 시즌은 좀 더 디테일하게 각 인물이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 그리고 의도치 않게 드러나지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드리며 이 작품의 본질을 이야기 하고 싶다” 말하며 “배우와 스태프 모두 지난 시즌을 통해 이미 이 작품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등〮퇴장 없는 90분, 미묘한 신경전부터 육탄전까지 완벽한 호흡으로 완성되다.**

90분가량 진행되는 이 연극의 무대는 매우 심플하다. 중산층 가정의 거실, 무대 전환도 배우들의 등〮퇴장도 거의 없다. 철저히 주고받는 대사로 가득하지만 한 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다. 한 치의 기울어짐 없는 팽팽한 긴장감의 설전부터 몸을 사리지 않는 육탄전까지! 남경주, 최정원, 이지하, 송일국은 90분의 공연을 오로지 환상의 연기 호흡으로 채워나간다.

**토니 어워즈, 올리비에 어워즈, 대한민국 연극대상, 동아연극상 등
권위 있는 시상식 ALL KILL! 영화계까지 사로잡은 수작!**

11살 두 소년이 놀이터에서 싸우다 한 아이의 앞니 두 개가 부러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두 부부가 모였다. 고상하게 시작되었던 이들의 만남은 유치 찬란한 설전으로 이어지고 결국 삿대질, 물건 던지기, 눈물 섞인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게 된다. 한 마디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 것이다. 두 부부의 소소한 에피소드를 한 편의 시트콤을 보듯 폭소와 함께 바라보던 관객들은 어느덧 자기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된다.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에 맞추어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민 낯 그리고 교양이라는 가면 속에 가려져 있었던 인간 근본의 가식, 위선, 유치, 치사, 허상을 말이다.

연극 <대학살의 신>은 지식인의 허상을 유쾌하고 통렬하게 꼬집는 작가로 유명한 야스미나 레자의 작품이다. 이 작품은 토니 어워즈(최우수 작품상, 연출상, 여우주연상), 올리비에 어워즈(최우수 코미디상) 등 권위 있는 시상식에서 주요 부문의 상을 거머쥐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2010년 국내 초연된 연극 <대학살의 신>은 대한민국 대표 시상식 대한민국 연극대상(대상, 연출상, 여우주연상)과 동아연극상(여우주연상) 등 국내 권위 있는 연극제 주요부문 상을 모두 휩쓸며 2010년 최대 화제작으로 인정받았다.

**왜 ‘대학살의 신’인가?**

‘대학살(Carnage)’이라는 살벌하고 섬뜩한 단어가 코미디 연극의 제목으로 쓰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연극에서 아이들의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 모인 두 부부는 대화를 거듭할수록 숨겨두었던 본색을 드러내고, 끝내 ‘대학살의 신’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처참한 형국을 맞이한다. 이 작품은 고상한 지성인인 척 교양과 예절이라는 가식으로 스스로를 포장했던 사람들이 서로 헐뜯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며 <대학살의 신>이라는 제목을 통해 인간의 위선을 조롱하고 있다. 또한 ‘대학살’은 아프리카 다르푸르 유혈사태처럼 머나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 경제, 종교 등 우리 사회의 전반을 넘어 삶의 가까운 곳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으며, ‘대학살의 신’은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이기심과 폭력성 같은 파괴적인 욕망으로부터 자라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2019 연극 <대학살의 신> 공연 개요**

* **공연일시 :** 2019년 2월 16일 (토) ~ 3월 24일 (일)
* **공연장소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 **공연시간 :** 화-금 8시 | 토-일 2시, 6시 | 월 공연 없음

(단, 2월16일(토) 6시 1회 공연, 3월1일(금) 2시 공연)

* **티켓가격 :**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 A석 40,000원
* **출연배우 :** 남경주, 최정원, 이지하, 송일국
* **스태프 :** 극본 야스미나 레자 | 번역 임수현 | 윤색·드라마트루그 오세혁 |

연출 김태훈 | 무대·의상디자인 황지영 | 조명디자인 민선홍 | 분장디자인 백지영 | 음향디자인 지승준 | 소품디자인 최혜진 |

* **러닝타임:** 90분 (인터미션 없음)
* **관람등급:** 중학생 이상 관람가
* **제작:** ㈜ 신시컴퍼니
* **예매 :**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ticket.interpark.com)

예술의전당 02-580-1300 (sacticket.co.kr)

신시컴퍼니 02-577-1987 ([www.iseensee.com](http://www.iseensee.com))

**홍보 담당** 정옥희 010.3553.4876 / 070-4619-2812 / joh4876@iseensee.com
백현지 010.7294.2190 / 070-4619-2823 / hj@iseensee.com
 **웹하드(www.webhard.co.kr) ID: seensee1 / 비밀번호: 1234 / 2019 연극 <대학살의 신> 폴더**

**목 차**

1. **연극 <대학살의 신>에 대하여 ……………………….…………………….….…….…. 7**
* 프랑스 작가 야스미나 레자의 블랙 코미디
*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는 과정을 통해 위선과 가식으로 뒤범벅된 인간의 민 낯을 까발리다!
* 완벽한 구성의 텍스트와 배우들의 에너지로 살아 숨쉬는 무대
1. **연극 <대학살의 신>의 역사 ………………………………………………….….…….…. 8**
* 웨스트엔드 & 브로드웨이 공연 역사
* 한국 공연 역사
1. **배우 및 캐릭터 소개 ………………………………………………….…….………………. 10**
* 알랭 役 남경주
* 아네뜨 役 최정원
* 베로니끄 役 이지하
* 미셸 役 송일국
1. **연출의 글 ……………………………………………………………………….……………… 14**
2. **연극 <대학살의 신> 에 대하여**
* **프랑스 작가 야스미나 레자의 블랙 코미디**

연극 <대학살의 신>은 지식인의 허상을 유쾌하고 통렬하게 꼬집는 것으로 유명한 프랑스 작가 야스미나 레자의 작품이다. 그녀는 연극 <대학살의 신>을 통해 부유함, 고학력, 충만한 자신감, 품위, 고급스러움으로 포장된 중산층과 지성인의 이중성에 대하여 유쾌하면서도 날카롭고 강력한 펀치를 날린다.

*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는 과정을 통해 위선과 가식으로 뒤범벅된 인간의 민 낯을 까발리다!**

11살 두 소년이 놀이터에서 벌인 몸싸움으로 한 소년의 이 두 개가 부러졌다. 연극 <대학살의 신>은 때린 소년의 부모인 알랭과 아네뜨가 맞은 소년의 부모인 베로니끄와 미셸의 집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된다. 자녀들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모인 두 부부는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눈다. 중산층 가정의 부부답게 고상하고 예의 바르게 시작되었던 그들의 만남은 대화를 거듭할수록 유치 찬란한 설전으로 변질된다. 그들의 설전은 가해자 부부와 피해자 부부의 대립에서 엉뚱하게도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의 대립으로 이어진다. 종국에는 서로 삿대질과 막말을 내뱉고 물건을 내던지는, 눈물로 뒤섞인 격렬한 육탄전으로 치닫게 된다.

변호사이지만 부도덕한 제약회사의 편에 서는 알랭, 고상한 척 하지만 중압감에 못 이겨 남의 집 거실에 구토를 하는 아네뜨, 평화주의자로 보이지만 아홉 살 딸의 애완동물인 햄스터를 길거리에 몰래 내다버린 미셸, 아프리카의 모든 만행과 살육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세계의 안녕과 평화를 꿈꾸지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타인을 억누르고 조율하려 들어 오히려 평화를 해치는 융통성 없는 원칙주의자 베로니끄까지. 이 작품 속 등장인물들은 모순과 이중성으로 가득하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어버린 두 부부의 에피소드 그리고 대화를 거듭할수록 본인의 모순을 스스로 드러내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폭소와 함께 바라보던 관객들은 어느덧 무대 위 두 부부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된다. 교양이라는 가면 속에 가려져 있었던, 인간이라면 모두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치 찬란함, 폭력성, 위선과 가식 등을 말이다.

* **완벽한 구성의 텍스트와 배우들의 에너지로 살아 숨쉬는 무대**

<대학살의 신>은 마치 어려운 내용을 재미있고 쉽게 풀어낸 사회심리학 베스트셀러 같은 느낌을 준다. 야스미나 레자의 작품들이 주로 그러하듯 이 작품은 인물들의 심리, 인물 간의 관계, 작은 단위의 집단(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섬세하고 위트 있는 코미디로 풀어냈다. 이렇듯 완벽하게 짜인 현실적인 텍스트는 관객들의 깊은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핑퐁처럼 이어지는 대사들은 실력파 배우들의 입을 통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팽팽한 설전이 된다. 순간순간 동반되는 배우들의 살아 숨쉬는 표정과 몸짓들은 극적 재미를 불러일으키고 완벽한 몰입을 만들어낸다. 관객들은 배우들의 몸에서 터져 나오는 섬세하고도 신랄한 연기를 통해 오로지 연극에서만 느낄 수 있는 완벽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될 것이다.

1. **연극 <대학살의 신>의 역사**
* **웨스트엔드 & 브로드웨이 공연 역사**

2008년 3월 25일 런던 웨스트엔드의 윈드햄극장(Wyndham’s Theatre)에서 초연된 연극 <대학살의 신>은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으며 2009년 올리비에 어워즈에서 최우수 코미디상을 수상했다. 2009년 3월, 브로드웨이에 입성한 연극 <대학살의 신>은 1000석 규모의 버나드 B.제이콥스 극장(Bernard B. Jacobs Theater)에서 450회가 넘는 공연을 지속하면서도 관객들의 열기가 식지 않았고, 다음 해인 2010년 6월까지 약 1년 간 공연되었다. 몇 주 만에 막을 내리는 뮤지컬과 연극들이 넘쳐나는 치열한 브로드웨이 시장에서 살아남은 것이다. 이 작품은 브로드웨이에서의 대중적인 성공 이외에도 권위 있는 일간지에서 호평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인 2009년 토니 어워즈 연극 부문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비롯 연출상, 여우주연상 등 주요 3개 부문의 상을 휩쓰는 영예를 얻는 등 그 작품성을 인정 받았다.

* **한국 공연 역사**

2010년, 국내 초연된 연극 <대학살의 신>은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돋보이는 연출가 한태숙이 연출을 맡아 화제를 모았다. 낯선 브로드웨이 최신작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0년 대한민국 대표 시상식 대한민국 연극대상(대상, 연출상, 여우주연상)과 동아연극상(여우주연상) 등 최고 권위의 연극상 주요 부문을 수상하는 등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그 다음해인 2011년, 앵콜로 다시 돌아온 이 연극은 초연 멤버인 한태숙 연출, 박지일, 서주희 배우, 그리고 이대연, (故)이연규 배우가 새롭게 합류하며 한층 더 깊어진 작품을 선보였다.

2017년, 6년만에 개성과 실력을 겸비한 최고의 배우 남경주, 최정원, 이지하, 송일국과 연극 <레드>의 연출이자, 뮤지컬 <원스>, <시카고> 등 국내 협력연출로 탄탄한 실력을 쌓아온 김태훈의 연출로 재공연되었다. 한층 젊어지고 참신한 무대로 다시 찾아온 연극 <대학살의 신>은 *‘최고의 배우들이 만든 멋진 연극(toaz8\*\*\*)’* 등 관객들의 열렬한 호평 속에 객석점유율 96%를 기록하며, 그 해 최고 흥행작이 되었다.

1. **배우 및 캐릭터 소개**
* **까칠한 속물 변호사, 알랭 役 남경주**

**알랭 (Alain Reille)** - 부당한 권력과 부를 갖춘 기업의 편에서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전형적인 속물 변호사. 초지일관 까칠한 면모를 보이며, 아이들의 싸움 정도는 돈으로 해결하고 싶어한다. 휴대 전화를 손에서 한시도 떼어놓지 않을 정도로 워커홀릭인 반면,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 작품은 무엇보다 대본이 끝내줍니다. 아주 치밀해요! 주제가 모든 시대를 포괄하며 극에 등장하는 네 명의 인물이 여러 유형의 인물 군상을 모두 보편적으로 이 안에 다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인간의 깊은 곳에 숨겨진 내면을 너무 가볍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은 표현들로 속속들이 보여줘요. 관객들은 솔직한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공감하고, 또 그 공감 속에서 반성을 하게 되죠.

이런 매력적인 작품을 이전 시즌에 호흡을 맞췄던 네 배우가 다시 뭉쳐 할 수 있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정말 호흡이 잘 맞았지만 그래도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분석하고 채워서 더 나은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알랭이 꼽은 관람 포인트!**

각 캐릭터들 모두 디테일한 부분을 살리기 위해 연습 기간 내내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가 맡은 알랭이라는 캐릭터도 좀 더 이성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로 보여드리고 싶어 이전 시즌에 비해 감정적으로 표현했던 부분을 자제하고 좀 더 차갑고 자기중심적인 인물로 보일 수 있도록 했어요. 배우들의 디테일한 연기를 보실 수 있는 연극 <대학살의 신>, 절대 후회 안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 **지킬 앤 하이드, 아네뜨 役 최정원**

**아네뜨 (Annette Reille)** – 외적으로는 럭셔리하고 교양 있는 중산층 가정의 여성. 본인을 자산 관리사라 소개하지만 실상은 남편에게 눌려 사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남편(알랭)의 전화에 진절머리가 난다. “저희는 그저 모든 게 잘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상냥하고 고상한 척 하지만 상황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남의 집 거실에 구토를 하고, 술에 만취하여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등 본색을 드러낸다.

연극 <대학살의 신>은 스스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타인에게는 애써 감추려고 했던 인간의 내면, 가식 등을 적나라하게 대면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줘요. 배우로서 그런 치졸하고 유치한 모습들을 무대 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죠.

2017 시즌에 네 명의 배우가 함께 하면서 정말 즐거운 기억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즌에는 서로에게 좀 더 세심하게 귀기울이고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90여 분간의 공연 동안 네 배우 모두 무대를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이 함께 극을 이끌어가는 팀워크가 우리 연극의 매력인 것 같아요. 다른 공연도 물론 팀워크가 중요하지만 <대학살의 신>은 특히나 무대 위에서 팀워크의 시너지 효과가 빛을 발한답니다!

**아네뜨가 꼽은 관람 포인트!**

공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병 안에 예쁘게 꽂혀있던 튤립들이 공연 거의 마지막 부분에는 하늘로 날아다니게 돼요. 튤립들이 바닥에 내동댕이쳐지게 되죠. 저(아네뜨)도 모르게 폭력을 표출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그때만 되면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미묘한 전율이 있어요. 공연을 보시는 여러분도 함께 그 감정에 몰입하실 수 있도록 제가 더 잘 연기해야겠죠?

* **똑똑한 척 & 고상한 척 대마왕, 베로니끄 役 이지하**

**베로니끄 (Véronique Houllié) –** 파트타임으로 서점에서 일하며 다르푸르 유혈사태에 대한 책 출간을 앞둔 아마추어 작가.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만행과 살육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자신의 일처럼 관심을 가지고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세계의 안녕과 평화를 꿈꾼다. 그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타인을 억누르고 조율하려 들어 오히려 평화를 해치는 융통성 없는 원칙주의자다.

우리 연극의 매력은 대사에 다 담겨 있어요! chaos equilibrium (꺄오스 에뀔리브흐). 혼돈이면서 균형이죠!

‘혼돈과 균형의 맛’을 적절하게 잘 살려내기 위해서는 네 배우들의 앙상블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함께 했던 배우들이 다시 뭉쳤으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성숙된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작품은 잘 찾아보시면 수수께끼를 푸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인물들의 별 거 아닌 것 같은 일상적인 대사나 행동도 사실 알고 보면 아주 많은 의미가 담겨있죠. 정말 그냥 지나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찾아보는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연을 보시는 동안 거울을 보듯 우리 배우들을 봐주세요.

**베로니끄가 꼽은 관람 포인트!**

아네뜨가 모든 것을 내 뱉는 장면요! 우리 공연에서 그 장면을 전후로 극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우리 연극의 핵심하고도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 대고 모든걸 다 쏟아내면서 사람들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씩 까발려지기 시작하거든요. 관객들이 무대에서 배우가 구토하는 걸 보는 게 공연에 흔히 있는 퍼포밍은 아니라서 의미뿐만 아니라 재미까지도 확실히 챙기고 가는 장면인 것 같아요!

* **평화주의자의 가면을 쓴 남자, 미셸 役 송일국**

****

**미셸 (Michel Houllié)** - 자수성가한 생활용품 도매상으로, 확고한 신념을 지닌 아내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는 공처가이자, 엄마와 끊임없이 통화하는 마마보이다. ‘좋은 게 좋은 거’ 라고 생각하는 평화주의자로서 끊임없이 알랭, 아네뜨, 베로니끄 사이를 중재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아네뜨와 베로니끄가 아홉살 딸의 햄스터를 길거리에 내다버린 일에 대해 몰아세우자, 끝내 그동안 숨겨왔던 투박한 심성과 울분을 터뜨린다.

어떤 작품이든 가장 중요한 건 재미와 완성도라고 생각해요. 우리 연극은 재미와 완성도를 모두 갖추고 있는 탄탄한 작품이죠. 거기에 소극장 연극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네 명의 배우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작품이잖아요!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죠.

지난 시즌 공연하면서 늘 생각했던 건데, 관객 분들의 웃음 포인트가 정말 달랐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네 명의 캐릭터 안에 다양한 인간 군상이 있기 때문에 관객들마다 와 닿는 웃음 포인트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직접 보고 자기 성격이나 자기가 처한 상황들에 따라서 감정 이입 되는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보고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셸이 꼽은 관람 포인트!**

우리 작품은 양파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대본이 아주 치밀하게 잘 짜여 있어서 알고 보면 네 인물들의 대사, 행동 어느 하나 허투루 하는 게 없죠. 그런 디테일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작품의 진짜 매력을 느끼고 싶은 분들이라면 자신 있게 여러 번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보면 볼수록 숨겨진 디테일을 찾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1. **연출의 글**

2017년 첫 공연을 하고 저와 배우 모두 관객 반응에 매우 놀랐습니다. 물론 연습 기간 내내 즐겁게 연습했었지만, 관객 분들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즐겁게 봐주시고, 또 뜨거운 환호를 보내주셔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9년 공연은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첫 연습 날, 배우 분들과 함께 지난 공연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관객들의 환호에 익숙해져 공연한 건 아닐까?’ 하는 객관적인 평가로 시작된 대화는‘이번 시즌은 좀 더 고급스러운 블랙코미디를 지향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2년의 시간만큼 단단해질 앙상블, 그리고 작품의 완성도**

2년전에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배우들에게 이 작품은 처음 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에 중점을 두고 나아갔죠. 다시 시작된 지금, 이 작품이 무엇을 이야기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본질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2019 연극 <대학살의 신>은 각 인물들의 성격을 좀 더 분명하게 하고 그들의 디테일한 감정선과관계성을 맺어가려고 합니다. 특히 캐릭터들이 일부러 의도하고 하는 행동들과, 갑작스런 상황으로 튀어 나온 의도하지 않은 행동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개인기는 최대한 자제하고 각 인물들이 처한 상황, 대화의 템포, 호흡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웃음을 전해드리는 것이 이번 시즌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연을 즐기는 방법**

공연은 어떻게 봐야 한다는 건 없습니다. 대본 자체가 매우 잘 쓰여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봐도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작품을 바라보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면, 하나. 시간과 사건의 흐름으로 작품을 바라봅니다. 각 캐릭터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 그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지를 보는 거죠. 이 작품은 4명의 배우가 90분간 거의 퇴장 없이 한 무대에서 끊임없이 이야기 하고, 서로를 관찰하고, 찰나의 기회가 포착되면 설전과 육탄전까지 벌입니다.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에너지 소모가 큰 작품입니다.

둘, 하나의 인물을 따라가 봅니다. 각 캐릭터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기분이 들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바라보는 것이죠. 멋진 양장을 차려 입은 네 명의 캐릭터들은 뜻밖의 상황을 마주하면서 자신을 포장하고 있던 옷들을 하나씩 벗고, 결국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민낯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하는지에 포커스를 두고 보면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은 생명체와 같아 매일 새로운 호흡으로 공연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공연은 없습니다. 지난 시즌을 봤던 분들이라도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경주, 최정원, 이지하, 송일국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멋진 배우가 얼마나 우아한 교양의 옷을 입고, 얼마나 찌질하게 진흙탕 싸움을 하는지만 보셔도 이 작품은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